

‘붉은 눈물’...마주한 역사의 상흔, 진실로 기억하다

김진남·성유진 2인 기획전 ‘붉은 위로: 잊혀진 이름을 부른다’...오는 30일까지 리아트센터

故 곽예남 할머니와 함께한 유일한 협업 작품 ‘세상 밖으로’ 아픈 역사 편린, 잊힌 이름 기억하고 기록하며 위로와 공감

역사의 상처를 기억하고, 잊힌 이름들을 불러
내는 위로의 전시가 광주에서 열리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리아트센터(동구 서석로 85번

길 20-1)에서 열리는 기획전 ‘붉은 위로: 잊혀진
이름을 부른다’이다.
이번 전시는 다음달 리아트센터 공식 개관전



성유진작 '리복녀 할머니의 증언'(왼쪽)과 '소녀'



김진남작 '붉은 눈물' 연작



에 앞서 마련된 자리다. 리아트센터는 전시장과
테마별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참여 작가는 김진남과 성유진이다.

김 작가는 회화 22점을, 성 작가는 회화와 영상
등 10여점을 선보인다.

성유진 작가는 피해자들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 직접 그 시대의 옷을 입고 몸의 언어로 기
억을 재현하려 했다. 섬세하고 직관적인 표현을
통해 외면된 여성들의 존재와 생명력을 드러냈
다. 특히 광주·전남 마지막 생존 피해자였던 고
(故) 곽예남 할머니와 함께한 유일한 협업 작품
이 공개돼 의미를 더한다.

김진남은 2019년부터 위안부 기획전을 준비하
며 자료와 사진, 증언을 접하는 과정에서 일본군
에 대한 분노와 피해자들의 치유되지 못한 고통
을 생생히 마주했다. 그는 이번 작업에 대해 고통
을 감각으로 기록하고 역사를 시각화하는 예
술적 사명이라고 이야기했다.

김 작가의 작업은 ‘소녀의 눈물’, ‘붉은 상처’,
‘붉은 눈물’, ‘할머니의 이름으로’, ‘아리랑’, ‘진
혼’ 등 시리즈로 구성됐다. ‘소녀의 눈물’은 끌려
간 어린 소녀들의 참담한 현실을, ‘붉은 상처’는
얼룩과 물감 덩어리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상처
를 드러냈다. ‘붉은 눈물’과 ‘할머니의 이름으로’

는 해방 이후에도 이어진 고통과 위로의 장면을
담았으며, ‘아리랑’과 ‘진혼’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위로와 진혼의식을 형상화했다.

두 작가의 시선은 서로 다르면서도 맞닿아 있
다. 성유진은 피해자들의 내면을 섬세하게 드러
내며 치유와 존엄의 가치를 환기하고, 김진남은
회화적 기록을 통해 집단 기억을 복원하며 역사
적 고통을 시각화한다. 이번 전시는 피해자들의
존재를 예술 속에 ‘기억된 타자’로 남기고, 위로
와 공감의 장을 여는 데 의의를 둔다.

김진남 작가는 “위안부 기획전을 준비하는 과

정이 막연하면서도 쉽지 않았다. 몇 년간 자료를
조사하며 느낀 것은 생각보다 더욱 처참하고 무
거운 현실이었다”며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할
머니들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담은 ‘붉은 눈물’
시리즈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 눈물이야말로 피
해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매개체라
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전시 운영을 위한 기부 모금함이 마련됐다. 모금
된 성금은 관련 활동에 뜻깊게 사용될 예
정이다.

/최명진 기자

‘한국 무용’...돌아보고, 마주보고, 멀리보다

바오무용단 상설공연, 23일 전통문화관

‘춤의 결, 조선을 거닐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23일 오후 3시 토요일상설공연 15회차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 ‘춤의 결, 조선을 거닐다’는 조선시대 춤을 탐구·계승하는
동시에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한국무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무대를 꾸미는 ‘바오무용단’은 ‘보기 좋게’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
‘바오’에서 이름에서 비롯됐다. 전통무용을 전공한 청년 예술가들이 장
단한 단체로, 우리 춤의 아름다움을 계승하면서도 다양한 예술 장르와
협업하며 현대적 무대를 창조해왔다. 한국무용의 깊이와 맛을 알리고,
관객에게 색다른 감동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

공연은 3부로 구성된다.

1부 ‘조선_춤이 되다’에서는 ‘사품정감(한량무)’과 ‘화선무’를 통해
한국무용의 정통성과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2부 ‘조선_춤으로 피어나다’에서는 ‘댄싱꽃선비’, ‘버꾸춤’, ‘연흥무’,
‘사랑타령’ 등 전통을 토대로 한 창작 작품을 통해 무용의 확장과 발전을



‘바오무용단’ 공연 모습

시도한다.

3부 ‘조선_춤과 마주하다’에서는 현대적 감각과 결합한 새로운 고전
서사 무용극 ‘댄스드라마 춘향’으로 관객과 만난다.

한편 전통문화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토·토·전!’(토요일, 토
요일은 전통문화관에서 놀자)’을 슬로건으로 절기 체험, 연화·민속놀
이, 한복 체험 등 시민을 위한 놀이마당을 운영한다. 전통문화관 프로그
램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한국과 베트남, 캔버스로 잇다

광주전업미술가협회 교류전, 29일까지 조선대미술관

한국과 베트남 현대미술 교류의 장이 광주에
서 펼쳐진다.

광주전업미술가협회가 주최하는 ‘2025 광주
베트남 하이퐁 현대미술 교류전’이 오는 29일
까지 조선대학교 미술관에서 열린다.

2021년 시작돼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전
시는 한국 광주작가 65명, 베트남 작가 35명 등
총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회화, 조각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현대미술의 흐름과
각 도시의 예술적 감각을 한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다.

조규일, 박행보, 우제길, 이돈흥, 김인화, 박
지택 등 지역을 대표하는 원로·중진 작가들이
참여해 전시의 깊이를 더했다.

김영화 광주전업미술가협회장은 “양국 작가
들이 끊임없는 창작을 통해 현대미술의 다양



김영화작 '제주의 추억'

성과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는 귀한 자리”라며
“예술을 매개로 한 소통이 국가 간 우호의 밑바
탕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